운허 스님 발자취 서린 운허역사기념관 개관

광동학원, 9월 8일 개관식 개최
애국과 교육입국 정신 기리고자
친필 원고·유품 등 200여 점 전시
초격 스님 "운허 스님 뜻 새기길"

남양주=김내영 기자



광동학원은 9월 8일 남양주 광동중에서 운허역사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36년 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쇠사슬에 묶이었던 우리 주권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부터 조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 스님들은 무엇으로써 이바지할 것인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니 중등학교를 설립하자."

독립운동가이자 광동학원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매진한 운허 스님(1892~1980)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운허역사기념관'이 개관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초격)은 9월 8일 남양주 광동중 하늘가람에서 운허역사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운허역사기념관은 개교 77주년을 맞은 광동학원이 운허 스님의 애국과 교육 입국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했다. 운허 스님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교육자다.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했다.

개관식은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동영상 시청, 이사장 인사말, 격려사, 축사, 사홍서원 순서로 개관식과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을 비롯해 양주 연화사 혜승 대종사,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 대종사, 운허기념사업회 이사장 인묵 스님과 광동중·광동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회, 불교어머니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운허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자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은 "5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광동학원이 명문사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운허 큰스님의 높으신 원력 때문"이라며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은 광동학원은 위대한 운허 큰스님의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운허역사기념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기념관을 자주 찾아 운허 큰스님의 높은 뜻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어느 해 질 녘에 찾은 봉선사에서 가사와 장삼을 수하시고 108 염주를 손에 쥔 채 다경실로 걸어가던 운허 스님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운허 스님은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회상했다.

기념식에서 이서현 학생은 광동 학생들을 대표해 운허 스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서현 학생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스님을 기리는 곳이 생겨 뜻깊다. 스님께서 학교를 세워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스님처럼 베풀며 살아가고, 학업에 충실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운허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기념관에는 운허 스님의 친필 원고, 저서, 경전 번역본 등 서책들과 생전 유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불교종합예술 범음범패로 중생교화"

능인종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 학인 수료식

코로나19로 4년 만에 5명 수료



대한불교능인종 영남 범음 패연구보존회(회장 수암, 능인종 총무원장)가 9월 10일 김해 화장사 대웅전에서 제14기 학인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열린 14기 수료식에는 5명의 학인이 입학해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5명 모두 수료했다.

보존회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범패를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교화에 힘써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암 스님은 학인을 대표해 "더없는 마음으로 6개월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총무원장스님, 강사스님, 울타리가 되어 주신 여러 대덕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한 글자, 한소리에 정성 담아 가르켜 주신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능인종 총무원장 청룡사 수암, 광명사 호암, 불연사 월암, 화장사 정우, 미륵사 현암, 법상사 태암, 불영사 일산, 운수사 덕우, 동방선원 묘공, 미륵암 혜암, 화엄정사 월산, 기원정사 송암, 밀림사 지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나비채 음악회' 개최

蓮음식 만찬 행사도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2023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를 개최했다

9월 9일 송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송광 백련 나비채 음악회'는 임헌정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한경arte 필하모닉이 출연해 송광사를 찾은 1000명의 시민과 불자들에게 늦여름 밤의 정취를 흠뻑 선사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으로 막을 연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김성결, 오보에 안중연, 클라리넷 윤빛찬, 바이올린 변지우 등이 참여해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바그너의 클라리넷 협주곡, 로시니의 오페라 나는 이거리의 이발사 등 주옥같은 명곡을 연주했다.

앞서 송광사 사운당 앞 뜰에서는 지역주민을 초청해 연을 주재료로 한 '아름다운 연 음식 만찬' 행사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 발전史 '한눈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발간
9월 8일 출판기념법회 봉행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장호경)가 9월 8일 대구 중구 관음사 무설전에서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은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재, 신행단체 활동과 역대 주석했던 스님 인터뷰 등을 정리해 200여쪽 분량으로 발간됐다. 특히 책에서는 경북대 불교학생회, 대구시 신도회, 대구공무원불자회 유마회, 대구 구도회 등 대구지역 대표적 신행 단체들에 든든한 활동 기반이 되어준 관음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관음사 부주지 동진 스님은 "법륜불자교수회에서 연구한 근대사찰의 역사와 문화는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경북지사장

4대 종교 한자리…"화합·평화 염원"

세계종교문화축제,
9월 12~16일 전주서 개최
12일 전라감영지서 개막 행사
종교 치유프로그램 등도 진행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우리나라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웃종교와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23 세계종교문화축제'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전주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 15회를 맞는 세계종교문화축제는 12일 전주 전라감영지에서 개막식을 갖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해 개신교 백남운 목사, 김창신 신부, 대종교 선도사, 이연수 수호사, 나유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집행위원장,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각 종교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축제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며 "다름으로 비롯된 다양한 갈등이 치유되고 온 인류가 평화롭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종교문화축제가 전북도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쉼과 치유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 동안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익산 원불교중앙총부, 김제 금산사 등에서는 종교 치유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종교문화축제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웃 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상생과 나눔의 한마당이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10월에는 특별기획으로 종단별 청년들이 참여해 주제 토론 및 성지순례 활동을 펼치는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재즈음악회 개최

9월 9일, 1000여 명 참석



문화와 힐링 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9월 9일 재즈음악회를 열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드리운 구례 천은사 일주문 앞 광장에는 'fall in love, jazz' 재즈음악회를 보러온 1000여 명 관중으로 가득 찼다.

주지 대진 스님은 "재즈음악회와 함께하신 모든 분이 편안한 느낌과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며 "가장 고마운 분들은 음악회를 찾아주신 분들이다. 아름다운 지리산, 아름다운 구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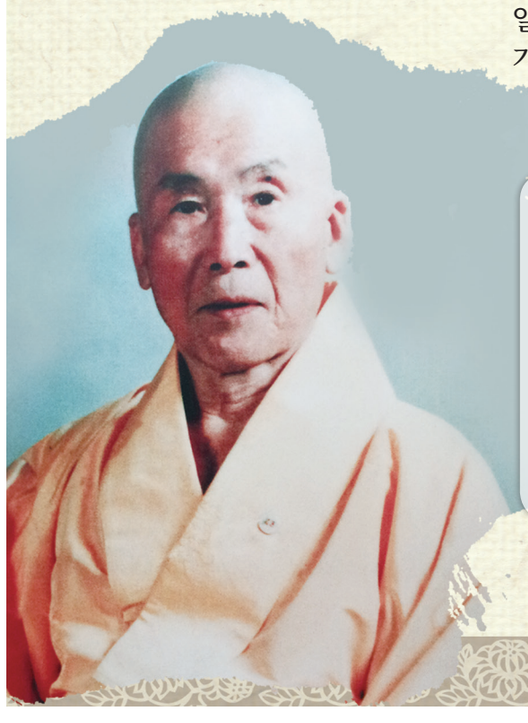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윱 반라인을 비롯해 섹소폰 신명섭, 피아노 임채선, 콘트라베이스 임대섭, 드럼 김영진, 타악기 파코드 진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보컬 양지, 문미향이 참여해 가을밤 재즈를 물들였다.

연주자들은 이날 대중적 재즈 음악 12곡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52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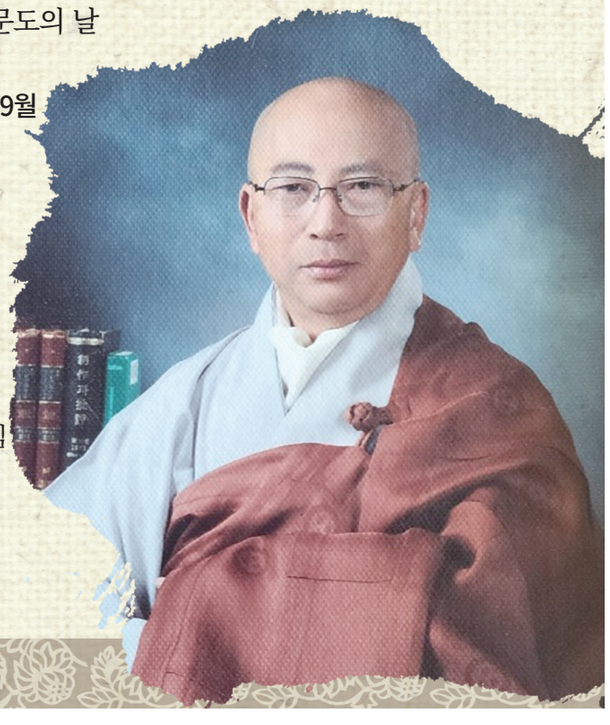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가피와 일붕 존자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붕존자님의 은·법제자 1만여 명으로 구성된 세계법왕 일붕문도회가 어느덧 52회째를 맞이하여 제52회 일붕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67(2023) 년 9월



◈ 제 목 : 제52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대법회
◈ 일 시 : 2023년 양력 10월 10일(음력 8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 장 소 :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네비게이션 검색하면 나옵니다.
◈ 전 화 : 정림회장 (010)3718-7900 서병열 사무총장 (010)6253-4936
배영희 사무국장 (010)2705-0959 영평사 종무소 (031)676-3960

수 석 고 문 임담 방장
상 임 고 문 정각·월인·법륜
문 장 혜운
총 재 동봉
부 총 재 청운
명 예 회 장 천강
회 장 정림
수석부회장 무각·도심·광명심
사 무 총 장 서병열
사 무 국 장 배영희



주최·주관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